

新

年

辭

多事多難했던 己未年도 어느덧 저물어 이제 大望의 80年代를 여는 「庚申」 새해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本人으로 하여금 大過없이 會務를 수행할 수 있게끔 獻身의인 努力을 기우려주신 任員陣 여러분과, 적극적인 聲援을 보내 주신 전국 3천5백 會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 家庭에 神의 은총과 萬福이 깃들길 頌祝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지금 우리는 福祉社會실현이라는 엄숙하고도 막중한 時代的 요청과 榮光된 祖國의 새역사 창조라는 民族의 使命感을 가득히 안고 이 時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醫療人은 바람직한 福祉社會실현을 위한 良質의 醫療태력이라는 범 국민적인 興望에 부응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醫療人의 矜持를 지키며 社會속의 醫療人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醫療伸張의 役軍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時代가 요구하는 의료인으로서 역사적 흐름에 傍觀者가 아니라 齒科醫療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開拓者로서 斥候兵 같은 사명감을 갖고 自我의 제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현시점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다 迎新한다는 것은 크나큰 感懷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우리 齒科界는 슬한 事件과 얘기들이 꼬리물고 明과 暗이 엇갈린 한해였습니다. 醫療保險의 확대실시는 여러면에서 크고 작은 餘韻을 남겼고, 齒科大學의 급격한 증설 역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것으로 보이며, 豫算부족에 따른 새마을 치과진료원의 휴원, 機關紙 주간화의 담보등 興件不備에서 오는 力不足의 所産이라 통감하는 바입니다.

한편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FDI, APDF등 많은 國際회의에 우리 회원들이 大舉參與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國威를 크게 宣揚했을 뿐아니라 우리 協會의 國際的 位置를 크게 높였다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어느 國際會議규모에 못지 않게 盛況을 이룬 종합學術大會는 우리들의 잠재적 능력을 파시한 표본이라 하겠으며 한국생산성본부에 應역의뢰 조사한 齒科診療酬價의 원가 계산은 정부에서도 미처 못한 齒協史上初有의 快舉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새해에 醫療保險의 질적향상,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망확대, 醫療保險제도의 효율적 운영등 社會 복지시책을 크게 확충해나갈 것이라 합니다. 이같은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복지사회 구현에 우리 치과의료인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跳躍의 80年代」.

이제 첫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3천5백 齒科醫師의 團合된 힘이며 그 힘의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跳躍 80年代」의 기초를 이루어 놓았읍니다. 앞으로의 成敗는 會를 求心點으로 團合된 力量을 집약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들의 共同權益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協調와 和合입니다.

所望스런 庚申 새해에 會員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會長 池 憲 澤>